

『 MOBICOINS 백서 』



제1편 모비코인을 위한 기초이해

제2편 모비코인 백서의 기본모델

February 2019

『 MOBICOINS 구조 』

* 모비코인즈 구조 정리

정책주관- ISEA재단의 정책개발과 로드맵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기본 정책은 금융주권을 공용화하는 모비달러를 개발하고 생존인권을 보장하는 스마트시티 지원하여 세계시민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개발주관- 모비달러를 스테이블 공통통화로 하는 모비코인들을 탑재하여 자유로운 지급결제를 수행하고 글로벌 멀티소통과 안전한 공유를 위한 월렛형 통합 플랫폼인 모비코인즈를 제공하는 것이다.

운영주관- 모비코인 운영사로 지정받아 생존인권 모비달러 프로젝트에 동의하는 코인을 모비코인즈에 탑재하여 지급결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인준받는 기관과 일정한 규모가 있는 거래소에 상장하고 해당 코인의 고유 프로젝트가 재단의 정책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비코인즈로부터 필요한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제1편

모비코인을 위한 기초이해

목 차

I. 4차산업혁명의 대동맥 MOBICOINS 블록체인 암호화폐

1. 개요 - MOBICOIN는 실생활 지급결제수단
2. 배경 - 지폐없는 나라, 탈중앙화 블록체인 화폐
3. 현황 - 투기자산인가? 4차산업혁명인가?

II. 기축통화로서의 모비달러와 모비코인

1. 암호화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로서의 모비달러
3. 유엔에서 ISEA재단의 발표와 의의
4. 모비달러와 모비코인즈의 모델 “000”
5. 모비달러 연동 모비코인즈 월렛에 탑재되는 모비코인들
6. ISEA재단의 거래소 사고의 해결방안

III. 모비코인즈의 특허적용과 탁월한 기반인 미러링 기술적용

1. 현장 기반 시스템
2. 이더리움 기술 기반
3. 글로벌 공신력 기반
4. 유엔 고위급기술금융 위원회 설계
5. 도시별 민주적 분배와 생존머니

IV. 타임라인에 맞춘 글로벌 플랜

1. 기술팀 Thefor의 업데이트 플랜
2. ISEA재단의 사회 안정화 플랜
3. 자산 가치로서의 플랜

V. 모비코인즈의 생활밀착 범주별 폭발구조

1. 채권자산의 암호화폐 전환 실거래 특허
2. 제도권 금융사를 통한 보호장치와 월렛의 P2P기능
3. 유엔 아젠다를 발맞춘 확장과 동시적 국제화
4. 스마트 ID와 결합한 세계시민

VI. 결론적 제안 가능한 핵심

제1편

모비코인을 위한 기초이해

I. 4차산업혁명의 대동맥 MOBICOINS 블록체인 암호화폐

1. 개요 - MOBICOINS 은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준비되었다. 비트코인 이후 현재까지 개발되어진 2000여개 암호화폐 중에서 단 하나도 지급결제 수단으로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다른 코인들에게는 모험이다. 그러나 MOBICOINS는 현장에서 매장의 결제 플랫폼과 각 가정의 TV를 스마트폰에 가져오는 모듈 등과 연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관특허 및 가상화폐로 대출이 가능한 특허등을 포함하여 20여개의 기술특허를 접목하는 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MOBICOINS은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지급결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몇몇 제휴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시도하지만 성공사례를 찾을 수 없다. 심지어는 비트코인 조차 가격편차의 심화로 상거래 결제시 부담으로 작용하여 화폐로서의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으며 투기수단의 대명사로 오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격편차의 문제를 바로잡아 기축통화로 개발되는 모비달러와 연동되는 최고의 안정화된 공통통화 시스템이다.

MOBICOINS 은 전자화폐(포인트, 충전카드) 타입의 결제 수단이 해킹과 무분별한 발행 및 무책임하거나 보장성이 미약한 행태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신뢰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플랫폼 모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기존 은행들 조차도 암호화폐시스템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시대에 버스카드 지하철카드 등 일부 안정화된 포인트 타입도 당연히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하는 시대에서 MOBICOINS 는 탁월한 조건을 제시하며 시대에 걸맞는 결제전용화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특히 MOBICOINS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기구 ISEA의 인정을 받고 있기에, ISEA가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로 개발하는 모비달러와 연동하게 되는 최초의 인준 코인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며 사용시마다 생존머니가 발행하여 공유경제의 실천이 탑재된 생존인권이라는 기본정신이 각인된 비권력 블록체인 코인이다.

2. 배경 - 지폐없는 나라와 탈중앙화 블록체인 화폐

하버드대 교수로서 전 세계 미디어가 주목하는 세계적인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는 세계적 불황을 타개 위해 지폐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의 저서 '화폐의 종말'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종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을 서술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폐해와 고액권 위주로 편재되어 있는 현대 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국제공조와 디지털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이미 몇몇 나라들은 현금사회로 정책을 바꾸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결제의 약 85%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절반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2015년 5월 레스토랑, 주유소, 옷가게 등 개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해 말부터 덴마크의 화폐인 크로네는 더이상 덴마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덴마크 금융기관 뉴크레딧의 경제학자 요한 올 안센 씨는 중앙은행의 화폐 아웃소싱 결정은 '덴마크가 현금 없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국 인디펜던트도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사회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 역시 2014년 5월 총리 직속으로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현재 98%~99%의 거래가 현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투데이'는 이 위원회가 현금 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한 세 단계 조처를 발표하며 현금 거래를 아예 없애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뉴욕 타임스가 2015년 12월 가장 먼저 '현금 없는 나라'가 될 곳으로 꼽은 나라인데 스웨덴은 지폐와 동전의 유통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불과하며, 당해년 스웨덴의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거래한 비율은 20%로서 전 세계 평균인 75%보다 현저히 낮다. 사회적 현상으로 스웨덴은행연합이 공동 운영하는 현금자동지급기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고, 버스 요금의 현금 결제는 중단되었으며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카드로 현금을 내기도 한다. 거리 행상을 하는 상인들 역시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심지어 스웨덴 주요 은행의 지점들 절반 정도는 아예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예금으로도 현금을 받지 않는다.

아프리카연합왕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아프리카의 통용 화폐의 적체와 편중의 단점을 보완하며 선진적인 기술혜택의 보편화를 위해 스마트한 암호화폐로 아프리카 공통통화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관점으로 모았다. 아프리카 왕국들은 5000여개의 크고작은 왕국으로 아프리카 55개 국의 국경과 상관없이 혈연과 역사, 문화와 종교로 어우러져 있으며 고대로부터 이어온 7개의 혈통라인이 중에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전역을 치리한 누비아왕국 시바 III세 여왕이 인정을 받고 있다. 이집트 왕국의 부총재로 인준되기도 한 시바 III세는 유엔 자문기구에서 개발하는 모비달러를 공통통화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블록체인 화폐는 2008년 사토시 나카모의 논문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 개념화 되고 다음해에 핵심기술로서의 Bitcoin이 구현되었다. 사토시는 탈중앙화를 통해 이중지불 및 해킹, 지불에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자산에 대한 추적불가를 위한 익명거래가 가능하도록 분산장부인 블록들의 체인을 기술로 진화시켜 금융에 적용하였고, 이더리움은 10분에 한번 생성되는 블록을 수초로 단축시키며 용량을 줄이고 동시에 모든 계약과 문서등의 거래증명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술에 Smart Contracts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에 플랫폼을 공개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래소에 올려진 화폐로 1300여종이 이른다 이 코인들은 원천적으로 두 가지 코인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현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암호화폐의 시초이고 이더리움이 모든 거래의 증명을 블록체인으로 가능하도록 기술확장을 전사회적인 플랫폼을 제공하였다면 모비달러는 가치고정으로 실거래가 가능하도록 지구생산성을 기반한 등가가치 정책을 유엔관련 기구들로 전이시킴으로서 전지구적으로 안정되게 블록체인 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주권의 대중화 기구인 것이다. 그리고 모비코인즈는 생활밀착형 지급결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비트코인의 편중으로 인한 쓰나미 같은 폐해를 바로잡고 현장 노동자들에게까지 4차산업 금융혁명의 혜택을 되돌려주는 모방하고 싶은 선구적 모델 기관인 것이다.



3. 현황 - 국내외 정세, 투자자산인가 4차산업혁명인가?

전세계 암호화폐시장의 시가총액이 2017년 11월 28일 현재 3000억달러로 코스닥보다 250억 달러나 높다. 이중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630억달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부 국가의 GDP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93개국 중 135순위 정도인 카자흐스탄과 카타르의 GDP와 맞먹는 수준이다. 다국적기업 IBM 1400억달러, 디즈니 1550달러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비트코인닷컴이 조사했다.

국내 시장도 2014년 빗썸이 전세계 가상화폐거래량 1위 거래소가 되면서 관심의 폭도 늘어났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5년 12월 4일 44만원, 2016년 12월 1일 895천원, 2017년 12월 1일 1223만원으로 불어나는 자산에 어떻게 투자를 안할 수가 있을까? 급기야 주식시장보다 커져버렸다. '17년 8월19일 국내 거래소의 하루 거래량이 최대 2조 6,000억원을 넘어서며 해킹사고나 불법적 거래 등의 부작용 또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가 발표되었다.

2017년 12월 1일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금융감독 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히미노 료조 일본 금융청 차관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상당히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그의 고백은 "곤혹스럽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홍보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규제의 역설'이었다.

이미 중국의 경우에서도 2017년 9월 4일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신규 ICO를 통한 용자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고 전세계 총거래량의 80%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중단하기로 하자, 2011년 설립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트코인 거래소인 2위의 BTC차이나가 2017년 9월 30일부로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14일 발표하자 최대 거래소인 허비닷컴과 3위 거래소인 OKCoin도 15일 저녁을 기점으로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중단한 2017년 9월 30일 가격이 4786,000원이었으나 2017년 12월 3일 13259,000원으로 치솟고 있다.

이렇듯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선도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암호화폐는 애초에 사또시가 기획한

탈중앙화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통제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무론하고 통제기구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확인해준다.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각국의 조치가 다양하고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요 동향을 살펴보았다.

ISEA재단이 지난해 10월 23일자로 받은 주요 40개국 정책동향 보고에 의하면 당일자로 17개 국가에서 ICO가 가능하고, 화폐로서의 수용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많았는데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법정통화로 인정한 독일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벨기에, 스페인, 체코,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규제조치를 병행하는 국가와 아직 혼란중인 국가도 많았다.

독자적으로 인도는 자국화폐 루피를 인도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e-Krona를 만들어 적용하고자 한다. 미국은 주식 및 증권으로 간주하고 영국은 상품권으로 간주한다. 반면 중국 러시아는 암호화폐사용을 불법으로 그리스도 비트코인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존 통화를 통제할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금융도 혁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금융인 암호화폐를 4차산업혁명의 대동맥으로 선언한 기관이 ISEA재단이다. 재단은 수년 전부터 현재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탈불법을 피하며 계도적 방향으로 진행하여 2015년에 1차, 2016년에 2차 시뮬레이션을 경험하였는 바 암호화폐의 명암을 프리즘을 통해 고스란히 체득하였다. 그리고 해결점을 찾고 국제특허를 출원하면서 민중봉기와도 같고 시민혁명과도 같은 이 금융혁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선도하고자 유엔 자문기구로서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컨퍼런스에서 모비달러를 발표하였고 이 정책에 따라 모비코인즈의 실거래 기반이 인증되어 전 세계 최초의 실용화 기관이 된 것이다.



특히 이 기술은 국가차원의 블록체인망을 구성하여 주민, 건강, 금융, 선거 등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시행할 수 있는데 IBM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90%의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몇몇 나라는 블록체인 기술로 자국의 화폐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발표하고 있다.

첫째, 현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현금 사용으로 연간 2000억 달러(한화 약 24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금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면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덴마크가 외국에 자국 화폐를 아웃소싱함으로써 2020년까지 약 1억 덴마크 크로네(한화 약 180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로부터 숨어 있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컨설팅 전문 업체 맥킨지의 2011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금결제비중이 50% 이하인 국가들의 지하경제규모는 평균 12%인 반면, 현금결제비중이 80% 이상인 국가들의 지하경제규모는 평균 32%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현금 결제와 지하경제규모가 큰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현금 결제가 사라지게 되면 '사과 박스 속 현금 다발'과 같은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여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각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

II. 기축통화로서의 모비달러와 모비코인들

1. 암호화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해 암호화폐의 문제점을 알리고 계도하는 내용이 2015년 11월에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정부의 지급보증도 없고, 해당 화폐 운영정지 및 폐쇄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화폐 발행규모 및 투명성이 부족하고,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과대 홍보하며 이용가능한 가맹점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열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비트코인의 경우 '17년 1월 33만명에서 '12월 현재 135만명으로 10배이상 늘어났다. '17년 11월 22일 국회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화보다 소비자보호, 자금세탁 차단, 과도한 투기 방지에 역점 둘 것이며, 12월 1일 송도에서 열린 동아시아 3개국의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논의 자리에서도 암호화폐를 매개한 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볼 계획이고 거래소가 법 조항을 위반할 경우 불법 금융으로 보고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더 많은 자금의 유입 그리고 더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규제가 강화될수록 성장과 확대는 거세져서 보편화가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암호화폐의 특징은 탈중앙화와 익명거래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총량의 제한이 있으며 오픈 소스를 통한 다양한 종류의 안전한 코인들이 개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체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일정한 사용자가 있는 코인들은 향후에도 가치가 상승되고 보편화될 수 밖에 없다.

각국 정부의 큰 과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며 암호화폐 자체의 가장 큰 과제는 대안화폐로서의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암호화폐의 장자격인 비트코인은 주로 게임용으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충성고객 유도를 위한 포인트와는 목적 전혀 다른 대안화폐로서 개발되었다. 대안화폐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장점은 분산장부인 블록 체인기술로 인한 해킹방지, 개인간 거래로서 탈중앙화된 의도에 의한 무기명 거래로 개인정보 유출의 방지, 개인 자산에 대한 권력적 추적의 불가, 거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및 빠른 결제, 무제한적 국제송금 및 자산 소지의 간편함 등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또 다른 현상도 목과할 수 없다.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즉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2017년 12월 현재 1300여개 코인 전체가 3000억달러인데 이중 비트코인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채굴방식으로서 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렴한 전기사용료 및 향상된 성능의 컴퓨터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과 지역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현재 중국이 80%의 채굴과 90%의 거래를 담당한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서 유럽의 값비싼 전기와 아프리카의 낙후된 컴퓨터로는 공정 경쟁과 혜택이 불가하다.

또한 모든 암호화폐가 안정된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가격등락의 폭이 심화되는 것은 모체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자산가치의 등가가 없이 오로지 유저들의 신뢰로만 상용화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종이화폐에서처럼 분실 및 파손의 위험을 해결하지 않고 상용화 되었는데 이는 코인 제작시 정책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암호화폐 소지자가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비밀번호의 분실, 기기의 분실시에는 고정된 총량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암호화폐의 수량은 필연적으로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익명성 거래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지하자금세탁 및 불법무기거래 등에 이용된다는 점인데 이것은 현재의 지폐로 거래되는 것이 암호화폐로 거래된다는 표현일 뿐이다. 불법적인 무기가 문제이고 지하자금이 문제이지 지급결제 수단인 암호화폐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난센스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은 부익부빈익빈의 편중현상, 가격등락폭의 심화 그리고 기술적 보완이 가능함에도 적용이 되지 않은 분실 화폐의 회귀기능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발행기관의 공신력과 사용처의 보편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로 발표된 것이 모비달러로서 ISEA재단이 주관하여 채굴 및 공급을 담당함으로써 화폐로서의 기능과 공유경제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2. 암호화폐 구축통화로서의 모비달러

모비달러는 지구의 생산성을 기반으로 가치를 증가한 총 수량과 가치총액을 매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모비달러의 총 수량은 지구의 총면적인 510,065,700 km²를 수량화하여 510,065,700,000 개 (5100억6570만개)로 총량 한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00억인구 1인당 약 50개 정도로 할당된 것이다. 이 수량은 1,000 m²당 1개 모비달러를 수량화 한 것으로 방출 및 가격등가가 용이하도록 기획된 것이다. 동시에 편차가 심한 각국의 화폐단위, 즉 짐바브웨에서 처럼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0을 무려 12개나 없애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일어날 경우에도 증가하여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한 수량이다.

모비달러의 지구생산성을 증가하는 방식은 현재 지구 자체의 생산가치를 각 면적별로 증가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지구 전체 국가의 1년 결산의 총액에 다음해 예산 5%를 더한 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예년 예산액을 산정한다. CIA세계 팩트북 (List of countries by government budget - Wikipedia)에 의한 2016년 지구 전체 232개 국중 228개국의 수입 \$23,256,968,000,000 / 지출25,875,789,000,000 USD 즉 25조 8,757억 8,900만 달러 (한화로 28,238조 2,485억 3,570만원)에 5%를 더한 금액 27,169,578,450,000 USD 를 510,065,700,000 수량의 모비달러로 나누면 2017년 1모비달러의 가치로서 \$ 53.26682121로 발표되는 것이다. 2018년의 1모비달러의 가치는 2017년 결산이 발표됨과 동시에 5%를 더한 예산을 총액을 510,065,700,000 수량으로 나누어 발표하게 됨으로 매년 모비달러는 당해년 지구 전체의 예산을 수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이다.

미국 달러화가 오랜기간동안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연방은행에 맡긴 금의 가치만큼 만 달러를 발행하여 통용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모비달러는 지구의 생산성을 담보하여 전지구가 합의한 평화안전 국가연합체인 유엔기구나 유엔의 자문기구 등에 위탁 승계함으로써 가상통화의 기축통화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유엔 컨퍼런스에서 ISEA재단의 발표와 의의

ISEA재단은 유엔에서 발표하기 위해 2017년 1월 비정부기구 위원회 컨퍼런스 진행자와 발표논의를 한 이래 사전에 3차례에 걸친 컨퍼런스에 대표자를 파견하고 고위급 대표들의 직접적인 지지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8월 1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발표승인을 받아 블록체인 모비달러의 기축통화 및 생존머니 시스템을 발표하였다.

모비달러로서 함축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포함된 의미의 세부내용은 4개 주제 두 개 파트가 내포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에서 2017년 10월 12일 발표된 정책과 함께 일부를 소개할 수 있다.



먼저 모비달러는 유엔과 함께하는 모비달러라는 주제로 유엔의 2030아젠다에 맞춘 목표 3가지를 발표하였다.

첫째는 금융주권의 공용화로 세계시민의 금융식민화를 방지하는 목표로서 돈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돈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인류는 모든 가치를 돈에 전이시켜왔는데 문제에 생존에 필요한 돈을 못가지는 불행한 부류가 발생하며, 이를 악용하여 돈을 절대권력으로 사용하여 노예화, 금융식민화가 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생존을 위한 돈을 버느라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금융주권이 공용화되고 생존인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모비달러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는 금본위제 상실을 지구생산성 본위제로 대체하여 정착시키는 목표로서 1031년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과 1971년 미국의 리처드닉슨의 금본위제 폐기에 따른 빈발하는 금융위기를 대체하기 위해 대안화폐로 비트코인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채굴기반의 편협성으로 전체 채굴의 80%를 중국 한 나라에서 채굴하고 있고, 발행기관의 미비성과 가치등가 없다는 이유로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가상의 화폐로 명명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법정통화로 채택하도록 강박되는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블록체인이라는 최고의 기술이 4차산업의 혁명적인 핵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금본위제를 지구생산성으로 대체하여 블록체인 기술로 모비달러를 구현하는 것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별히 지구 생산성에 기반한 모비달러의 선언은 인류 모두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당위성에 근거한다. 현재 지구의 인구부양능력은 120억 인구를 부양할 식량이 생산되는 것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장 지글러 조사관에 의해 조사

되었으며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75억의 인구로 약 10억명이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전인구의 36퍼센트가 굶주림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모비달러는 금융기술혁명의 기로에 선 지금이 바로 이러한 부조리를 해결하는 생존인권의 기회로 모비달러를 선포한 것이다.

모비달러의 선포에 놀란 대표자들 덕분에 힘이 충전되어 이후 컨퍼런스에서는 지지 서명을 받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획기적인 사실은 ISEA재단은 2018년 2월 UN본부 컨퍼런스에서 자체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비정부기구 유엔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고위급기술금융위원회에 의해 표결로서 모비달러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날의 행사순서지는 지금도 유엔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4. 모비달러와 모비코인의 모델 “모비코인즈(MBC)”

모비달러는 지구생산성을 기반한 가치코인으로서 지구 전체의 면적과 예산을 수용한 불가역적 가치로 평가되어 매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기구의 고위급기술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발표되도록 한다. 또한 모비달러의 안정된 연간 동일가치는 실생활 지급결제는 물론 국제무역거래에서도 환율격차의 문제로 인한 결제를 주저할 필요가 없게 한다.

모비코인즈는 모비달러의 철학을 반영하여 모비달러와 연동,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별, 분야별 특징을 녹여 만들어내는 코인(토큰)들로서 모비달러의 생태계 구축과 지역사회 인프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ISEA재단은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발하여 각각의 코인들을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통합형 월렛플랫폼인 모비코인즈에 해당 코인들을 탑재할 예정이며 각각의 코인들은 모비코인으로서 모비달러 정책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모비코인들은 모비코인즈에 탑재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코인이 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플랫폼 지급결제 수단으로 실생활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비코인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코인들과 달라 가치등락폭을 잡을 수 없거나 실생활기반의 가맹점이 미약한 페이들과 달리 획기적인 특허와 확장성있는 기술을 동반할 수 있다.

즉 BLE (저전력 Bluetooth) Smart 기술을 적용, 블록체인 APP to APP 방식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직접 블루투스 장치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완료되어 빠른 처리 속도와 결제의 편리성 제공하게 되는 것이며, 비슷한 일반적 결제와 달라 본 시스템은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이더리움, 비트코인 암호화폐 아키텍처 기반으로 계정 정보는 고급 암호화 표준을 통해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블록체인 코어 노드에 API 호출을 통한 거래 처리 블록체인 기반의 탈 중앙 분산 원장 기술에 중앙 인증 합의 방식을 결합, 분권화된 지불/결제 솔루션으로 사용자들의 사용 편의성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비코인은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 및 손쉬운 QR코드 방식의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카드 사용으로 인한 결제수수료로 획기적으로 절약하게 됨으로 고객은 물론 업소도 유익한 플랫폼이다.

이러한 실생활 기반의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모비코인을 배당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의 모델이 되도록 하는 반면 모비달러의 철학을 반영한 유엔 관련 정책자 및 협력기관들의 기획이 합쳐져 공표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기에 탑재되는 모비코인들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물화폐로 자리매김을 하는 국제 결제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한류열풍, Kpop열풍이 열어준 길에 암호화폐 통합형 월렛인 모비코인즈가 전 세계 실물경

제에 정착하게 되는 교두보가 되는 것이다.

5. 모비달러 연동 모비코인즈 월렛에 탑재되는 모비코인들

* 발행정책 예

- ERC의 기반의 프라이빗 토큰 및 퍼블릭으로 발행한다.
- 이더스캔에 블라인드되어 백앤드에서 작동하도록 구성한다.
- 모비달러와 연동되도록 데이터 블록체인 커넥션을 구성한다.
- 확장성을 위한 기존 시장환경 적응을 위해 초기에 결제용 카드에 탑재한다.

* 코인정책 예

- 코인의 명칭 : 모비코인 , 하이레벨코인
- 코인의 약자 : MBC, HMBC 등
- 코인의 단위 : 소숫점 이하 8자리
- 충전용 토큰 : MCH (1 MCH = 1,000원)
- 발행수량, 유통수량, 수량관리정책

* 월렛정책 예

- 통합형 플랫폼 형태로 개발한다.
- 코인 전송 및 거래, 코인결제 물, SNS , P2P중개 기능
- Android, IOS, PC버전

* 기술정책 예

- P2P거래를 중심으로 한 기술력을 활용한다.
- 월렛의 API를 중심으로 거래소에 제공하여 가격의 급등락문제를 해소한다.
- 소각기능, 추가기능, 롤백기능 등 오픈형으로 관리한다.
- 모비코인즈 블록체인 개발 및 참여기술의 컨소시엄 공유로 개발자의 유고시 대처와 발전의 속도를 확대한다.
- 근거리 결제를 위해 OTT모듈을 적용하고, 원거리 결제를 위해 이메일 영수증을 발생시킨다.
- p2p활성화를 위해 전세계 유저등록을 월렛상에서 프로그래밍 한다.

* 운영정책 예

- 특허출원으로 국제적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한다. (현재 보유특허 22개)
- 유엔 컨퍼런스를 통한 고위급 기술금융위원회 및 방출위원회로부터 경과조치를 받음으로 모비달러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 ISEA재단이 최종운영을 담당하며 기술팀의 운영은 개발팀, 기술팀들을 블록체인 컨소시엄 회사에 참여시켜서 통하여 운영한다.
- 모비달러 출시 후 3차에 걸친 공지를 통해 유저들의 등가혜택을 반영
- 상장 후 초기 가격정책은 ISEA재단의 정책을 수용하며, 다수 거래소 상장 후 사안별로 적용하기로 함.



6. ISEA재단의 거래소 사고의 해결방안

암호화폐 자체는 해킹이 불가하다 암호화폐의 개발은 정책이 문제이지 기술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물론 더욱 좋은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 기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 차원의 개발이 아니라 더욱 향상된 기술의 적용을 실현하는 급속한 진화를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되어져 있는 1300여 암호화폐중 주요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것 상위 링크에는 항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자리잡고 있다. 블록타임이 21초대로 진입한 이더리움보다 30분 대로 진입한 비트코인이 더욱 가치가 상승되고 있음에도 또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구형 암호화폐임에도 단 한 번의 블록 해킹이 발생하지 못했다.

마운트곡스 사고 이래 지금까지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는 모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블록을 깨고 훔쳐갈 수 있던 것은 단 한 개의 코인도 없었다. 그렇다고 개인간 거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더리움이 스마트컨트랙 플랫폼을 공개소스로 제공하여 블록체인의 유일한 강자로 자리잡은 모습을 곧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이 모든 인터넷 접속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향후 모든 거래의 증명, 즉 이뤄지는 모든 계약이나 전송,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 정부와 앞선 기관들이 개발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나 보편적이고 공식적으로는 UN이 Google을 사용하듯이 Ethereum 기반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ISEA재단은 개발 컨소시엄 TheFor팀을 통해서 거래소 자체를 블록체인화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모비 달러 개발과 함께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ISEA재단이 개발하는 블록체인형 거래소는 해킹이 불가하므로 거래소 자체사고로 위장되는 몇몇 경우에서처럼 고객의 거래를 거래소에서 임의로 관여할 수 없도록 장치된 채로 구현된다. 특히 다국적 개발자들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에서 소스를 공유되기 때문에 개발된 자산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주체가 된 것 같이 독점적인 권력이 되는 일이 방지되고 어느 한 국가의 소속도 되지 않음으로 인류 공영의 자산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플랫폼이 완성되는 대로 안드로이드나 이더리움과 같이 소스를 공개하므로 공통적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III. 모비코인즈와 연관되는 기술

1. 현장 기반 미러링 기술 시스템

모비코인즈(Mobicoins)의 현장시스템을 좀더 명료하게 설명하면 현재의 TV의 화면에 나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게 함으로서 리모콘으로 할 수 없는 화면확대 및 축소, 터치결제, 일괄검색, 등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한 OTT를 적용하고, OTT에는 기존의 셋탑박스를 통합할 수 있고, OTT에 직접 BLE 블루투스로 원터치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OTT를 켜놓고 시청하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모비코인즈 중 채굴형 코인(00코인)과 같이 모비달러와 연동될 수 있는 채굴형 코인을 채굴할 수도 있다. 이로서 광고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구현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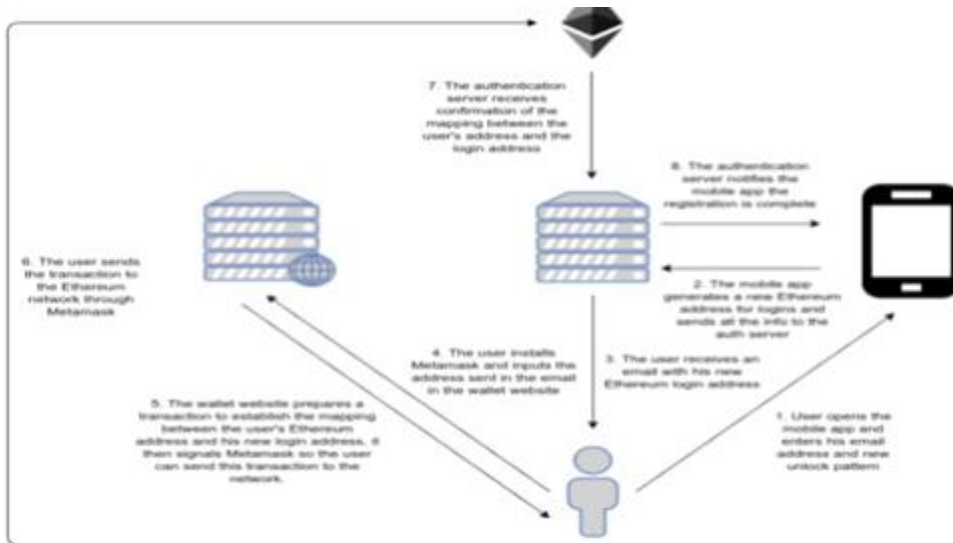


또한 TV화면에 나타난 쇼핑물의 경우 암호화폐의 QR코드와 OTT 결제수단을 병행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카드 사용자들 및 전화결제 모드를 통한 모든 쇼핑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고객분석의 빅데이터 생산도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공유경제적 사상의 모비달러의 생존인권의 적용에 보다 강력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

2. 이더리움 기술 기반

이더리움(Ethereum)은 2014년 비탈릭 부테린이 19세에 창업 하여 만든 블록체인 계약(Contract)이고 암호화폐는 ETH로 표기되며 비트코인과 함께 1300여개 암호화폐 전체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일상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장 위험의 소지가 높은 것이 바로 계약이다. 물건의 매매, 돈의 지급과 이체, 문서의 서명 등 모든 것이 계약을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이더리움은 바로 이 계약을 단 몇 줄의 블록체인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더리움의 가치는 이러한 계약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의 수수료보다 훨씬 싼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더리움 화폐(ether)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이더리움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현재 이더리움 기반의 글로벌 협력체인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EEA)’를 중심으로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확산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도요타, 삼성SDS 등 100여개 이상의 글로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바 이더리움의 가치와 확장성은 무궁무진한 상황이다.

블록체인이 데이터 거래 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서버 관리 방식이 아닌, 거래에 참여하는 모두(노드)가 데이터를 묶음(블록)으로 분산-저장하는 방식으로서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장부에 기록 및 저장하며 각 노드별 장부와 일치하는지 수시로 대조 및 확인하고,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므로 데이터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핵심 기술로 대두된 것이다.

여기에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서 모든 데이터와 신뢰성이 필요한 거래에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비금융 분야를 아우르게 만들었다. 즉 디지털 신원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정보관리 기능 제공하는 신원관리, 문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인증 기능, 전자투표 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선거 시스템, GPS와 연계하여 차량 운영 시스템과 상품재고와 운송이력등을 관리하는 물류, 사이버 공격 및 권한관리형태의 보안분야,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스토리지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조차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더리움이 인터넷의 월드와이드웹과 같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며 상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ISEA 재단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암호화폐 모비달러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중 거래소를 설계하여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고 이에 대한 공유발전의 차원에서 글로벌 개발팀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기술백서의 필요성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기술백서는 계획에 불과함으로 백서가 발간된 대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실책이요. 백서 발간이 선행되면 설계도에 의한 기술설계자의 해당 플랫폼 선점으로 위험부담이 되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재단의 정책에 따른 기술은 이더리움 플랫폼의 확장성과 개연성 속에 실현의 도구가 들어 있음을 알게된다. 재단은 개발이 완성된 후 사용된 기술과 소스를 정리하여 새로운 기반의 인류자산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더리움에 생존인권 시스템을 구현한 것으로서 경쟁과 개인주의에서 상생과 존중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장되도록 상용화 되는 기술자체에 세팅하는 것이다.

3. 글로벌 공신력 기반

193개국의 연합기구인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로서 ISEA재단은 이사회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다. 제출되는 의견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이사회 회원국에 배포된다. (ECOSOC 결의안 1996/31, part IV, paragraph 30) 나아가 인권 이사회 옵서버 자격으로서의 권한이 있어서 제소 절차(the Complaints Procedure)에 심의 중인 것을 제외한 인권 이사회의 모든 회의 참가 및 참관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인권 이사회에 서면 의견서 제출하고 구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재단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11개 기능위원회와 5개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고 서면의견서 및 구두 의견 (Oral statements) 발표를 개진 할 수 있다. ISEA재단은 회의가 개최 되는 장소인 뉴욕의 유엔 본부 또는 제네바의 유엔 사무소에서 ECOSOC 연례 회의에 구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으로 재단은 2017년 8월 1일 유엔에서 컨퍼런스에서 모비달러를 명명하고 생존인권이 담긴 생존머니 시스템을 발표한 것이다.

재단은 모비코인이 모비달러와 연계되어 현장에서 즉시 진행될 것을 2018년 유엔 회의에서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아가 병행 행사를 조직하여 유엔대표들로 구성된 20명의 고위급기술금융 위원을 위촉하기로 하였다. 모비코인즈는 유엔대표들에게 헌정되거나, 생존인권 프로젝트로 지원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제적인 공신력과 함께 국제 거래소에 상장 및 모비코인즈 월렛의 글로벌 확대가 되는 것이다.

4. 고위급기술금융위원회와 고위급방출조정위원 구성

각국의 유엔 대표 20명으로 구성되는 고위급 기술금융위원회는 매년 모비달러에 대한 연간 고정가치로 산정된 내용을 발표하고 모비달러의 등가에 따른 방출을 위해 실물자산의 평가를 자문한다. 실물자산의 가치평가는 해당 지역과 해당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이 복수로 참여하여 담당하게 되며 평가된 가치에 맞는 모비달러의 수량이 해당 자산에 배정되는 것이다. 이는 금본위제에 입각한 달러 발행의 원리와 동일한 체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고위급 기술금융위원회는 4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국가별 1인 이상이 참여할 수 없다. 이들은 각 국가 및 비정부 기구의 유엔대표로 인정받은 현직일 경우에 선임되고 선임 후에는 4년의 임기동안 모비달러와 각 지역을 위한 정책을 자문한다..

고위급기술금융위원회는 각 도시별 지역별 방출등가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방출을 감독한다. 방출등가조정위원회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2030 아젠다에 맞추어 모비달러 전량을 방출하고 해산하여야 한다. 모비달러는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원년인 2001의 분량부터 17가지 목표를 해결하려는 유엔 아젠다 2030까지의 기한을 1세대로 하여 모비달러의 방출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령 2019년까지 19년간의 분량을 프리미엄하여 자산심의로 증가됨과 함께 실물자산의 가치이전을 과정을 거쳐 별도로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고, 2019년부터 11

년간의 모비달러는 전체적인 기능을 조정하며 연간 방출량을 조정하여 510개 도시를 구심점으로 전세계에 방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정책과 진행은 2018년 2월 UN본부 컨퍼런스의 비정부기구 유엔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고위급기술금융위원들에 의해 표결로서 전권을 위임받은 ISEA재단에서 주관하고 시행한다.

유엔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인류역사상 최초로 주인없는 바다를 모두의 바다로 만들었다. 이전의 주인없는 바다에서는 마구잡이 남획과 글로벌 기업의 무분별한 경쟁적 개발로 해양생태계가 깨어지는 와중에 12해리 영해제도 및 국제해협 통과통항제도를 확립하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1994년 11월 16일 유엔해양법협약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심해저와 그 자원등에 대해서도 국제해저기구를 설립하여 인류공동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비달러는 이러한 공해면적과 인류공동유산에 대한 생산성에 해당하는 분량의 수량을 유엔 고위급기술금융위원들의 자문을 반영하고 방출조정위원들에게 맡겨져서 각국이나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없이도 직접적으로 시민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MSGnet 도시별 민주적 분배와 생존머니

2017년 현재 인구 100만명의 이상의 도시 (MSGnet : 메트로폴리스 서번트리더십 거버넌스 네트워크) 는 507개 정도이며 몇 년 후에는 510개도시가 된다. ISEA재단은 도시로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농어촌 및 산지조차 도시를 위해 기능하는 기능형 마을들로 변모된다고 본다. 1900년대 10%의 인구만이 살던 도시에 207년 사상처음으로 도시인구가 시골인구를 앞섰으며 2030년에 이르면 세계 인구의 60%인 50억명이 살게되고 2050년에는 75%가 도시인구가 된다. 이는 모든 기술, 문화, 삶의 질과 혜택이 도시에서 시골을 관장하는 형태로 되어지고 도시간 네트워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국가간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국적 직장이 흔해지며 가족조차 다국적으로 되어지나 문화와 삶의 질을 따라 이동하는 구조가 된다.

재단은 도시를 중심으로 민주적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모비코인즈에 탑재되는 모비코인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중심형 생활밀착시스템이기에 민주적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유럽의 도시화가 삶의 질이 높은 데 반해 빈민들은 남아시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과 라틴 아메리카의 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인구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재단은 생존머니시스템을 4차산업혁명이 대동맥으로 다가온 블록체인 화폐개혁에 장착시키는 것만이 인류를 금융식민에서 해방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생존머니는 2019년까지의 19년 분량의 프리마이닝 모비달러를 공유면적 및 인류공동유산의 생산성과 증가하여 유엔산하 비정부기구들을 통하여 도시중심으로 극빈층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금융거래에 모비달러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10%의 생존머니가 자동으로 발생하여 비정부기구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이전되는데 이는 발생한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수익을 생산성으로 보고 프리마이닝한 19년 분량에서 해당되는 만큼의 모비달러를 별도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서 모비달러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10%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증명한 것에 대한 보증으로 10%가 추가로 발행하여 극빈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공유경제 마인드를 실천하는 당연한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모비달러가 전량방출된 이후에는 모든 기업과 모든 개인이 사용하는 암호화폐가 되어졌기에 모든 거래에서 수익이 발행한 것의 10%가 생존머니로 작동하도록 한다. 이는 모두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손해라고 여기는 개념이 사라지고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인간 개인마다 자신의 자녀나 가족이 곤경에 처하거나 장애나 사고를 당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돕지 못할 것을 인해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인류 공통의 보험시스템이며 인권보호 시스템이다.

생존머니 시스템은 사고와 장애 및 질병의 시기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며 생명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보증은 지구 자체의 생산성이 보증하는 것이다. 힘과 경쟁의 논리로 지구가 주는 혜택을 독점하고 자신만의 이기를 위하던 사회는 폐기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것이 블록체인이라는 혁명적 기술과 암호화폐라는 금융기법 덕분이다. 많은 사람과 전문가들조차 블록체인을 해킹불가의 요소를 방어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흠트릴 수 없는 분배시스템의 장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존머니의 역할이 이상과 같이 설명되었고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음식의 공급이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의 공급이며 이동의 자유이다. 직업을 구하던 무엇을 찾던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은 이동의 자유가 없으면 감옥과 차이가 없다. 생존머니는 일정한 거리 또는 일정한 회수에 대한 이동비용을 제공한다. 또한 과거 유엔 인구기금의 토라야 오바이드 국장이 언급한 대로 도시개발에는 주택과 사회서비스 확충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홈리스가 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취침의 장소가 보장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제공되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소통이다. 스마트폰 사회가 되어 모든 소통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건강체크 생존에 대한 확인 및 새로운 기회에 대한 정보제공, 자신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한다.



IV. 타임라인에 맞춘 글로벌 플랜

1. 기술팀 Thefor의 업데이트 플랜

글로벌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TheFor은 기술의 개인적 독점과 유고시의 버퍼를 방지하고 개별 국가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는 또하나의 방법이다. 블록체인 금융의 모비달러는 모든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는 바 플랫폼의 공유가 필연적으로 대두 될 것이다.

이 때를 위해 더욱 발전된 기술의 열린 참여와 공용플랫폼으로서의 체질화가 초기 팀구성에서부터 시민의식으로서 준비되는 것이다. 특히 다국적 개발자들이 개발소스 및 운영방법의 집단공유로 개발의 속도를 가속하고 국가별 특성과 문화를 보편적으로 반영하여 개발하고 직관적 작동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

이더리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능을 융복합하여 자체적인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일반 개발자들의 접근과 응용이 용이하여 스스로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2017년

- 1월 더퍼팀 유엔파견 기술관련 부문 발표 면담
- 5월 더퍼팀 4개국 대학원생 및 기술팀 유엔 컨퍼런스 참여
- 8월 유엔 컨퍼런스에 고위급기술금융위원 자격으로 발표
- 10월 재단 정책의 기술구현 점검 및 프로젝트 진행구성
- 12월 이더리움기반 안드로이드 월렛 MobiCoins, 모비코인즈 구성

2018년

- 1월 구성표에 따른 기능 세팅 및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비달러 업데이트
- 2월 유엔대표 참관 월렛과 지급결제 시연
- 5월 이집트 카이로 모비달러 컨퍼런스와 기술미팅
- 12월 자체 거래소 착수 및 코인 상장 준비

2. ISEA재단의 세계시민사회 안정화 플랜

유엔의 자문활동을 통한 유엔의 지속개발발전목표의 우선 항목인 기아와 빈곤퇴치의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전 세계 510개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비정부기구들과 연대하고 있다. 모비달러를 통한 금융주

권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빈곤의 적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 전통 왕국들과 연대하여 공통통화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공유경제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하고 있다.



재단은 또한 채권의 족쇄를 풀어 채권도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로 출원중인 컨트랙 오토매틱 크립토크렌시 거래소를 무상 설치하여 자본시장의 현금 흐름을 풀고, 채권마저 현금처럼 풀어지도록 하게 되어 생산경제에 증폭된 활성화를 가져오고 문명과 문화의 혜택이 소외계층과 저개발 국가에 까지 파급되도록 한다.



2017년

- 1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 인준
- 4월 유엔 각국 대표들의 의견청취 및 생존머니 시스템 지지
- 8월 생존인권 자동화시스템인 블록체인 모비달러 유엔발표
- 9월 아프리카왕국연합 토지등가 및 공통통화 협정

2018년

- 2월 다국적 대표들로 유엔 기구내에 고위급기술금융위원회 구성
- 4월 생존머니 방출조정위원회 구성
- 9월 뉴욕 유엔총회기간 비정부기구 유엔대표 블록체인 금융 모임

2019년 준비중

- 2월 유엔 비정부기구 연례회의 참여 및 글로벌 로드맵 구성
- 5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블록체인 금융, 생존인권 모비달러 관련 컨퍼런스 주관

2020년 준비중

- 2월 유엔 비정부기구 연례회의 참여 및 고위급기술금융위원회 회의
- 5월 유엔총회 공식문서에 모비달러 프로젝트 가시화

--
--

2030년 준비중

모비달러 전량방출 및 고위급 방출위원회 해산

3. 자산 가치로서의 플랜

모비달러의 자산가치는 지구생산성을 증가한 것으로 금본위제를 대체한 것이며, 방출되는 모비달러 역시 실물자산을 담보하고 가치이전 되는 금액 만큼만 방출됨으로서 안정된 가치보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모비코인들은 실거래 구매고객에게 주는 10%의 리워드 혜택으로서 치킨 10회 구매시 1회 무료 증정과 같은 현장문화의 경험으로 구매자들이 사회적 학습효과를 지니고 있기에 동일한 가치보장이 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보장과 같은 효과에 암호화폐의 특유의 초기 거래소 상장시 항상 가격상승이 일어난다. 이후 뒤따르는 보상이 없을 경우 가치가 하락되지만 모비달러나 모비코인즈는 보상이 뒤따른 것 자체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기에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누군가 자신의 받을 10% 혜택의 권리 (1회무료로 치킨을 먹을 권리)를 그보다 낮은 가격에 일부러 수고하면서 거래소에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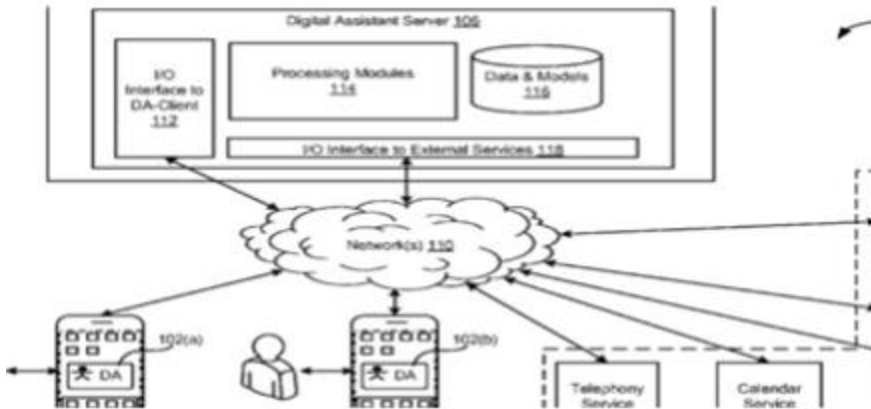
모비코인은 리워드기능 및 마스터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어 있다. 기존의 인프라에 익숙한 유저들이 사용하고 본 플랫폼에 익숙하게 되기 까지는 본 기구의 모비코인즈가 전체가 기존의 비자카드 또는 마스터카드로 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비코인즈 월렛을 사용하는 유저들 간에는 수수료가 없는 모비코인 사용자로 자연스럽게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V. 모비코인의 생활밀착 범주별 폭발구조

1. 채권자산의 암호화폐 전환 실거래 특허

ISEA재단은 모든 금융계약시 발생하는 채권을 암호화폐로 즉각 변환시키는 특허를 출원하였다. 기존의 부동산 거래나 기업투자시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되는 두가지 핵심은 투자가치와 현금의 묶임이다. 전통적으로 투자와 동시에 투자된 현금이 계약기간 동안 묶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단의 특허 출원의 내용은 투자로 묶인 금액도 채무자에게 묶이지 않고 채권자의 손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재단이 국제특허로 출원한 내용은 채권이 발생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변환되는 것으로서 암호화폐로 변환된 채권화폐는 현금처럼 채권 자체를 거래소를 통해 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기반이 없는 일반 암호화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가치기반이 명확한 암호화폐들도 가치상승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채권형 암호화폐는 태생부터 가치상승을 내재한 채로 만들지는 것이다.

채권을 암호화폐로 전환되는 것은 투자한 돈 조차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채권을 현금과 동일한 단위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에 동일한 코인을 보유했거나 해당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를 알고있는 업소에서는 채권암호화폐를 직접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채권으로 묶이는 자산의 현금화 및 유동화는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현금의 흐름을 원활하게하여 혈류가 잘 흐르는 것과 같은 건강이 활성화된 사회를 가져온다.

재단의 특허를 적용한 모비달러가 채권형 거래소에서 사용됨으로서 모비달러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모든 국제거래 및 일반시장에서 모비달러의 가치를 상승하게 만듦으로 유엔 자문기구의 모비달러 방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제를 받거나 지구생산성 가치평가로 가치 이전을 모비달러로 받고자 하는 기관이 늘어나게 되어 2030까지 전량 방출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제도권 금융사를 통한 보호장치와 월렛의 P2P기능

ISEA재단은 2015년부터 신설은행 코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은행을 연결하는 SWIFT 코드를 받게되는 것으로서 모비달러가 전 세계 금융의 신경망에 직접 접속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코드를 받은 모비달러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모든 국가의 현금과 직접적으로 호환되는 대안화폐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모비코인을 탑재하는 월렛인 모비코인즈 또한 P2P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그럼으로서 유저들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암호화폐의 태동이유가 되었던 탈중앙화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유저들 간의 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금융사를 통한 보호장치로 안정성을 확보한 내용이 될 것이다.



3. 유엔 아젠다를 통한 확장과 동시적 국제화

ISEA재단이 유엔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적인 기구는 3000개 이상이 된다. 재단은 각 도시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기구들을 소집하여 생존인권 기능이 있는 모비달러와 모비코인즈를 소개하고 각 도시별로 모비코인즈 월렛 설치 이벤트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유엔 자문기구들을 중심으로 고위급기술금융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각 국의 비정부기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는 방침이고 3000여 국제기구에 소집공고를 통보하여 월렛기능,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방법을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맹점을 부각시켜 생존머니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적 분배와 맞물려서 510개 도시를 중심으로 이벤트가 기획될 것이며, 도시별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지정하고 무상으로 월렛형 통합 플랫폼 모비코인즈를 제공한다. 국제특허로 출원한 채권형거래 플랫폼 즉 채권발생과 동시에 암호화폐로 전환된 코인을 거래하는 암호화폐 채권형 거래 기능등은 거래소 자체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해킹이 불가능한 거래소로 구성될 수 있다.

현재 유엔가입 193개국 중 40여개국 150여개 도시가 뜨거운 관심사 되고 있으나 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자금이 생산가치가 없는 가상의 화폐로 이동하여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특징상 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어 국가마다 고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등가 코인으로서의 모비달러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모비코인들은 각 국가의 고통을 덜어주며 4차산업 혁명의 기로에서 몸살을 앓는 국가들과 도시들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채권형 거래기능의 기대와 함께 필수적으로 소개될 내용 즉 계약과 동시에 암호화폐로 전환되는 시스템

은 기존의 자본시장에 현금의 묶임이라는 족쇄를 풀어주는 획기적인 내용이 되어 움츠렸던 자본이 채권형 거래 기능을 통해 걱정없이 투자되어 건강한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자되어 어두운 경제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된다.

4. 스마트 ID와 결합한 세계시민

미국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공항에는 보안시스템이 철저히 가동된다. 특별히 테러 및 불법이민이나 불법 취업의 방지를 위해 공항과 국경에는 개인별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유학생이 방학을 맞아 고향에 갔다가 국가간 관계가 경색되어 입국을 못함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기업이 시장조사에 파견할 전문인력이 공항에서 되돌아와서 거래가 캔슬되고, 가족임에도 국적이 달라서 생일날 조차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의 정보와 신용을 동시에 증명하는 스마트ID는 여권과 비자로 불충분하여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고 심사하는 별도의 절차를 면제하여 준다. 현재의 국가개념은 영토, 인구, 주권이다.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영토가 없어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영토와 민족이 있지만 주권이 없어 원치 않은 나라 이름을 달고 사는 민족도 있다.



근대의 국가체제는 베스트팔렌조약 (영어로 웨스트팔리아조약)이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각각 1648년 5월 15일과 10월 24일)에서 체결됨으로서 종교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독일의 30년 전쟁 및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의 80년간의 전쟁이 종식 되었으며, 프랑스는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비로소 근대적인 국가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는 세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동시적으로 ‘global’과 ‘local’의 단어로 이루어진 ‘glocalization(현지화)’에 반영되었는데 즉 세계시민들은 다양한 경계들을 여행할 수 있고 국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UN 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을 발의했다.

내용은 제 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조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건 신탁통치지역이건, 비자치 지역이건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건, 그 나라나 영토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제 13조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성을 인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언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메트로폴리스 510개 도시에 전인구의 60%가 소통하는데는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빠른

신용의 인증이 필요하고, 상호의존적인 커뮤니티를 지속하고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정주할 도시를 결정하게 되는 시대를 맞아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혜택과 복지를 제공하는 환경개선에 앞장서게 되므로 모비달러는 전 지구적인 대안화폐가 되며 모비달러에 구현되는 스마트ID카드는 필연이 된다.

5. 모비달러 월렛과 생존머니 기능들

타임스퀘어의 나스닥과 월가의 국제금융의 자본이 몰려있는 맨해탄에도 2017년 8월 조사에 보면 3800명의 홈리스가 있다. 보호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설 입소의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온다. 길거리 생활이 시설입소의 생활보다 덜 불편하다는 반증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배려는 권력과 기관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생존은 지구의 넉넉한 120억명을 먹이고도 남는 생산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18, 19세기의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으로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잘못된 혁명이었다. 4차산업혁명으로 보다 단축된 시간과 수준높은 양질의 삶이 가능해졌으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하는 기업의 정신만으로는 이전 역사의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 기계와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혜택을 공유하는 것과 선진적 문화를 꽃피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줄기세포, 나노기술,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혁명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점이다. 즉 금융주권을 일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의 기능에 생존인권의 기능을 추가하는 토양이 형성되어야 하며 생존머니는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작동하도록 섬김의 권력을 기계적으로 행사하여 이후 세대를 살게될 모든 사람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이를 위해 전 55개국에 걸쳐 혈연과 문화로 맥을 이어오는 아프리카 왕국의 78%의

재단은 스마트컨트랙트 방식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거래와 인증, 신뢰가 연동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오픈되어 있는 이더리움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팀을 모으고 위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술적 정보와 이해를 위하여 천재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른이 작성한 '차세대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백서'를 기술백서로 첨부한다.

VI. 결론적 제안 가능한 핵심

1. **공신력** - 모비코인즈 (MOBICOINS)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가 개발하는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모비달러(MobiDollar)와 연동되는 전세계 최초로 모델화폐로서의 탑재될 수 있는 기획의 월렛/코인이다.
1. **기술력** - 각각의 모비코인들은 이더리움기반의 오픈소스를 이용한 스마트컨트랙트를 융복합하여 구현하고 업데이트하므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토큰형 코인이다.
1. **현실성** - 탑재되는 모비코인들은 생활밀착형 실거래 기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월렛에 적용하는 코인으로서 월렛의 몰을 통해 50%이상 결제하는 코인이다.
1. **보증성** - 모비코인들은 충성고객을 위한 유도를 위한 포인트로 습득된 기존인프라와 연동되는 타입의 자체 유통몰을 통하여 가치하락과 관계없이 상장시의 가치를 일정기간 인정할 수 있는 보증적인 코인이다.
1. **확장성** - 모비코인들은 TV사용자를 OTT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끌어오며, 동시에 지구생산성으로 금분위제를 대체하고 유엔 자문기구들을 통한 방출계획과 연동된 전지구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코인이다.
1. **가치성** - 초기 참여자가 될 수록 코인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보장된 풍요와의 혜택적인 계약이다.

- * 본 백서에 사용된 실제사진은 ISEA재단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입니다.
- * 본 백서는 <https://www.mobicoins.agency/> 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됨으로 최신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백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보증이나 증거로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 * 본 백서는 목적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배타적 보호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본 백서의 내용에 따른 진행은 웹사이트 서치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으나 본부에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정보나 내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제2편

모비코인 백서

기본모델

모비코인 백서 기본모델

목 차

- [1] 법적 고지 및 면책 사항
- [2] “전문” (재단정책 반영을 위한)

1 모비코인 HMBC (하이레벨모비코인)의 목표

- 1.1 모비코인 : *HMBC (하이레벨모비코인)이란?*
- 1.2 *HMBC 코인 고유의 목적*
- 1.3 모비코인즈 월렛형 통합 플랫폼 개발
- 1.4 모비달러(MobiDollar)와의 연동

2 모비코인 : HMBC (하이레벨모비)코인 주요 수익 모델

- 2.1 *HMBC (하이레벨모비)코인의 주요 수익모델*
- 2.2 코인 결제 쇼핑물
- 2.3 모비코인즈 플랫폼 서비스
- 2.4 블록체인 사업

3 모비코인 HMBC 정보

- 3.1 *블록체인 및 발행 정보*
- 3.2 *자금 분배 계획*

4 모비코인 : HMBC 코인 관련 특허적용

- 4.1 금융 분야
- 4.2 메신저 분야
- 4.3 물류 분야
- 4.4 응용가능한 업무

5 모비코인 : HMBC(하이레벨모비코인) 로드맵

- 5.1 초기부터 현재 (2015 ~ 2018)
 - 각 연도별로 구별가능

5.2 앞으로의 계획 (2019 ~)

6 개발 컨소시엄

7 부록

[1] 법적 고지 및 면책 사항

본 백서는 모비코인즈 백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하이레벨모비코인(HMBC)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관련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본이 아닙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는 모비코인 : HMBC의 사업 운영, 개발 방안 등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수정, 추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HMBC의 잠재 투자자는 어떠한 환경 (경제, 정치, 법률 등)의 모든 변화에 의해 토큰의 가치에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사는 모든 유무형의 손실,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모든 잠재 투자자들은 본 문서를 이해할 의무와 관할 법률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제를 숙지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본 백서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 HMBC 시스템에 관련한 기술 및 정보들은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며 어떠한 기관의 검증이나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법률, 재무, 세무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HMBC팀은 본 백서에 기술된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지속적인 보증 혹은 합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MBC 보유자는 HMBC의 완성 및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환경 (자금 부족, 개발 실패 규제 등)의 모든 변화에 사업 중단 및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HMBC팀이 보상해 주지 않으며 본인 스스로가 모든 리스크를 인지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하이레벨모비코인 (HMBC) 본 백서의 내용 전체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HMBC 팀은 프로젝트 완성 및 운영에 있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 버전 (Version) 업데이트 공지

HMBC코인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는 본 백서에 의하며 본 백서는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 된 경우 최신 버전으로 자동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새 버전이 본 백서를 대체하는 것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본 백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2] HMBC코인 전문

모비코인 HMBC는 100가지 상품의 결제가 가능할 때 방출한다.
모비코인 HMBC는 50% 이상 결제금액으로 인정될 때 방출한다.
모비코인 HMBC는 10만명 이상 유저가 있는 거래소에 상장 후 방출한다.

모비코인 HMBC는 물품 구매자에게 가치가 인정되는 리워드로 제공한다.
모비코인 HMBC는 유저에게 상장시 가치를 인정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모비코인 HMBC는 ISEA 유엔결성 자산운용에 발행량의 (00%)를 위탁하고 발생 수익(의 일부)를 제공한다.

모비코인 HMBC는 생존인권의 보편적 혜택을 위한 생존인권 토큰이다.
모비코인 HMBC는 모비달러 설계자의 호혜정신으로 발행한 토큰이다.
모비코인 HMBC는 유엔 아젠다 2030의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토큰이다.
모비코인 HMBC는 개인이 발행한 것이며 재단의 정책을 따라 운용한다.

HMBC코인의 기본구조는 어느 개인이나 회사가 토큰을 팔아 자금을 만드는 형식이 아닙니다. HMBC코인은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해당 수익을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구매자는 되돌려 받은 토큰으로 다음에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산 가치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또한 HMBC코인은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물품결제에 사용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짜여진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금액에 구매하더라도 물품 결제시에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나타날 경우 거래소에서의 코인가치가 급상승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저와 함께 모비코인즈 월렛을 통하여 직거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필품을 찾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1 모비코인 : HMBC (하이레벨 모비코인) 목표

1.1 HMBC (하이레벨모비코인)이란?

모비달러에 연동되는 코인으로서 자산을 증가하여 방출하므로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유자들간에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리스크 발생시 리스크 부담은 분산되고, 가치 상승시에는 수익가치가 공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즉, HMBC는 고정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자금의 활용도를 높여주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또한 HMBC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어 도시를 발전시키며, 탈중앙화의 완벽한 실현으로 진정한 디지털 통화와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의 중심에 자리잡는 코인이 될 것이다.

HMBC의 공식 영어 명칭은 'High-level Mobi Coin'이며, 약어로는 'HMBC'를 사용한다.

HMBC는 모비달러가 개발되기 전 모비코인즈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코인으로 자금이체, 단말기 영수증, 인터넷 쇼핑, 글로벌 무역 결제, 법정화폐 P2P 매칭, 코인 대출, 코인전용카드를 이용한 캐시 충전 등 결제, 거래, 소통, 신용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 HMBC 코인 고유의 목적

HMBC는 전세계 도시 및 각 지역에 자산가치로 산출될 수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의 가치를 산출하여 증가되는 가치를 HMBC로 환산하여 방출하는 것이다.

해당 취지에 동의하는 회원들 및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MobiCoins월렛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암호화폐 유저들의 유입과 확산을 위하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하는하도록 하고, 실물경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물품 등록을 통한 인프라 확산에 집중한다.

또한 생존머니 정책에 따라 차상위계층 및 저개발국가의 펀드지원으로 생필품 직거래를 통한 구매기회를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통신 인프라와 지급 결제(Payment)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 내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결제 및 IoT, 에너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하여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HMBC 블록체인을 도시와 접목하여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예시이다.

지불 및 송금

공공 거래 장부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지불 및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중앙화된 은행이나 제3자를 거치지 않아도 위치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은 금융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없으며 빠르고 안전한 거래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P2P 물류 및 전력 등 거래

기존에는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프로슈머가 중앙 매체, 예를 들면 한전에 이웃간 전력 거래를 신청하면

거래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한전이 승인을 해야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거래가 가능하였지만 블록체인 기반 P2P 전력 거래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최적의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즉시 이웃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송배전망 건설 및 유지비용이 줄어들며 잉여 전력을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전력 거래시장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물인터넷(IoT)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물인터넷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는 중앙 집중형으로 네트워크 독점에 대한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정보를 분산 형태로 공유하기 때문에 중앙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의 위, 변조를 방지, 신뢰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을 높인다.

보건복지

복지제도가 블록체인을 통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된다면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급을 함으로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복지 대상자의 자격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속한 보건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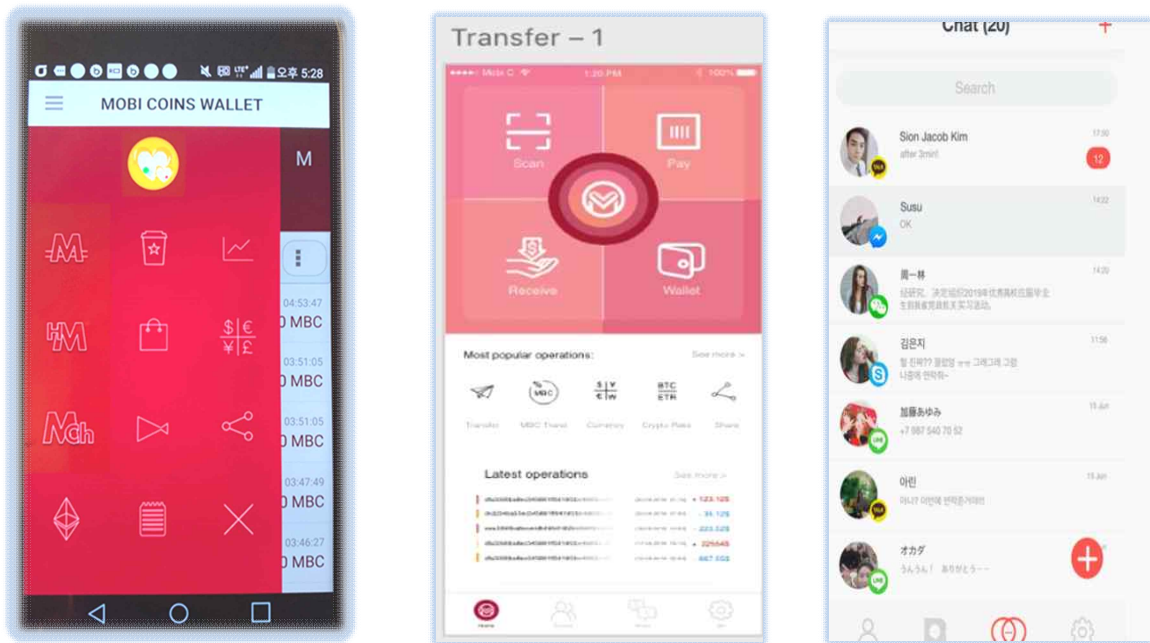
공공 서비스

스마트 시티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일반 행정, 수출물류 서비스, 모바일 지역 화폐, 인증 및 유통 이력 제공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편익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융합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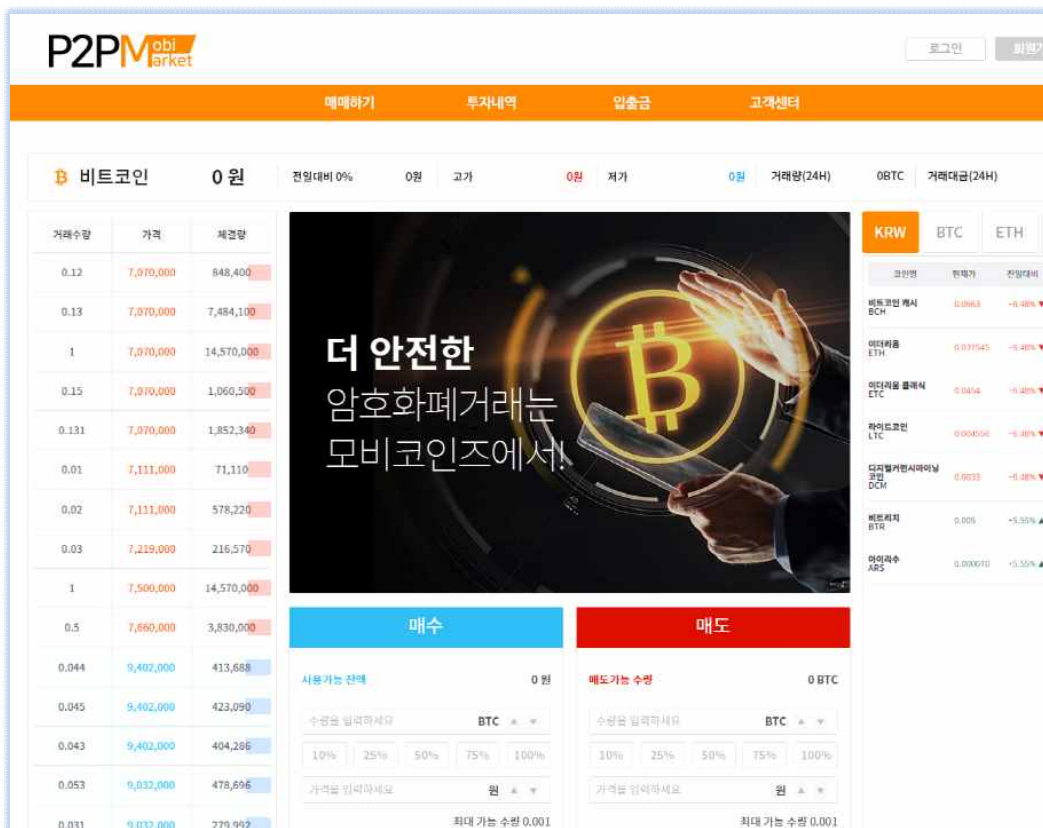
1.3 모비코인즈 월렛형 통합 플랫폼 개발

HMBC는 모비코인즈 월렛형 통합 플랫폼에서 주축을 이루며 완벽한 솔루션 시스템 제공을 위한 미래선도형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모비코인즈는 월렛형 통합 플랫폼으로 온,오프라인결제, 전자영수증, 에스크로, 대출, 세금 정산 등의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메신저 기능을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데이터 및 코인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투표, 행정처리, 의료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데이터(도로 파손, 사고 신고 등)를 제공함으로써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화면 구성 및 디자인>



< 거래소 구성 및 예시 >

모비코인즈 월렛형 통합 플랫폼은:

결제

- QR코드 혹은 리더기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가 가능.
- 마스터카드와의 연동으로 전세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가능.

쇼핑몰

- 탑재된 모비코인을 이용한 상품 구매 및 할인 혜택.

P2P

- 위치(GPS), 에스프로, 다양한 매칭 시스템, 이메일 영수증 발급 가능.

회원간 은행 이체

- 은행보다 쉽고 간편한 은행 송금, 이체, 회비 납부 등 가능.

메신저

- 데이터 전송, 온라인 고객센터 업무 지원, P2P거래시 구매자-판매자 채팅 연결.

거래소

- 글로벌 거래소 연결, 코인간 거래 참여, 원화 거래 가능.

충전

- 은행 입금과 동시에 블록체인 모비코인
- 캐시(MCH) 충전, 도난 및 분실의 위험 없음, 현금 입출금 가능.

교환

- 수백여 개 이상의 코인 등록 혹은 다른 토큰들과 교환(Swap) 가능.

앱등록

-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등록 가능.

검색

-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직접 원하는 인터넷 검색 가능.

구매

모비코인즈 월렛에서 모비코인 직접 구매 가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4 모비달러(MobiDollar)와의 연동

모비코인(HMBC)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에서 발표된 모비달러와 연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모비달러는 전 세계 모든 화폐와 거래 및 교환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화폐이다.

따라서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거래에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결제를 진행할 때 코인 가격 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크게 변동된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암호화폐, 모비달러를 발행하게 되었다.

모비달러는 생존인권을 보장하고 금융 식민지 고착화 해결 및 금본위제 화폐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비코인즈 월렛형 통합 플랫폼 내에서 Sub코인 (모비코인)들과 연동하여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제네바 유엔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기관 및 정부기관, 국제적인 NGO의 대표들의 의결을 이끌어내어 조직 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모비달러는 유엔총회 공식인정 문서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모비달러의 발행량은 금을 포함한 모든 광물, 식물, 동물, 산림, 바다, 사막 등을 인류 공동유산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 전체 면적(약 510,650,700 km²)을 ‘지구가치등가’ 방식으로 수치화 하였고, 1제곱킬로미터 (km²)당 1,000 모비달러로 정립시켰다.

총 발행량은 510,650,700,000 모비달러이며, 유엔(United Nations)의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2030아젠다’의 첫 번째와 두번째 달성 목표인 빈곤해결, 굶주림에 대한 ‘생존인권(Survival Human Rights)’이라는 암호화폐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차용한 ‘생존머니(Survival Money)’로서,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방출된다.

모비달러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러 암호화폐들을 모비달러의 서브코인으로 포용하여 연동되게 함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비달러 속에 포용된 암호화폐들을 지칭하여 모비코인즈라고 부른다.

이 모든 암호화폐들을 담는 모비코인즈월렛은 이러한 각각의 서브코인들의 특징을 살리고 모델화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다. 모비달러와 연동되는 모비코인즈 월렛에는 현재 MCH, MBC, HMBC, ETH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유통물(쇼핑물) 결제수단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생존인권 시스템 모비달러는 유엔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인, 공표된 기축통화로, 4차 산업혁명의 기로에서 기존 법정화폐의 제한성과 유한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암호화폐의 가격의 변동, 분실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전세계 모든 민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탈중앙화 공통통화’이다.

02 모비코인 : HMBC의 주요 수익 모델

2.1 HMBC 코인 고유의 주요 수익모델

HMBC는 모비달러의 정책에 의해 진행되는 세계 각국의 510개 대도시에서 부동산, 동산 및 자산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가치를 증가하여 HMBC로 방출함으로써 증가된 부동산, 동산 및 자산가치가 적용된 프로젝트의 유동성으로 인한 수익, 생산성으로 인한 수익, 확장성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HMBC는 스마트 시티의 모비달러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거대한 금융 수익을 창출시켜 줄 것이며, HMBC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인프라 요소들을 사용할 때,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 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2 코인결제 쇼핑물

각종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물을 개발 및 운영하며, 실생활에서 필요한 식품, 의류, 가전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의 몇 가지 예시로는,

고객이 상품 결제를 완료 후 일정 금액을 HMBC로 적립을 해주며 적립한 코인으로 다른 상품을 사거나 할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 시티 기관과 제휴한 해당 지역의 특산물 혹은 지역축제 티켓 상품 등의 세일 이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비가 가능하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유저의 지갑에서 바로 결제하는 P2B(peer to business) 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해킹 등의 문제로부터 안정을 보장한다.

2.3 모비코인즈 플랫폼 서비스

HMBC코인이 탑재되는 모비코인즈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월렛형 통합 플랫폼이며 스마트 시티 및 각 기관, 기업들과 연계하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한번의 등록으로 암호화폐 지갑 및 쇼핑물, P2P, 거래소 등의 이용이 가능하며 글로벌 통합 결제, 전자 영수증, 스왑(Swap), 대출 등 폭넓은 금융거래와 탑재된 소셜 메시저의 다양한 채팅 기능으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선점하여 각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HMBC코인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비자 또는 마스터 선불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2.4 블록체인 사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들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HMBC코인팀은 블록체인 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끊임없는 개발과 성장을 거듭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과로 다양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나라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제휴 및 협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에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발전 가능성이 유리하다.

03 모비코인 HMBC 정보

3.1 블록체인 및 발행 정보

- 토큰 이름 : 하이레벨 모비코인
- 토큰 심볼 : HMBC
- 토큰 기반 : ERC 20 (프라이빗)
- 컨트랙주소 :
- 총발행량 - 5000만개
- 총유통량 - 500만개
- 정 책 - a seventh of Mobidollar's issuing amount 510,065,700,000 MBR
- 소수점이하 : 9자리
- 시세정책 : 고정환율과 변동환율 유기적 연동
- 연동개시: MCH 충전, 출금, 교환, 결제

3.2 자금 분배 계획 (1차/N)

- 개발사 모비프랜즈 10% /
- 창립자 30% /
- 생존머니 10% /
- 유엔아젠다 정책적용 참여 30% /
- 프로젝트 주관사 20% /

총 1조원 규모 중 프로젝트 방출 20%

프로젝트 주관사 : 더퍼 1000억 규모 (20%)

| 구분 | 사업명 | 사업비 | 비고 |
|-------------------|-----|----------|-------|
| 합계 | | 총 1조원 규모 | 3년사업비 |
| 개발업무 | | | |
| | | | |
| 프로젝트 정책업무 홍보지원 | | | |

- ※ 현재 정책과 기획을 완성한 코어팀에 의해 자금만 확보되면 실현에 문제없음.
- ※ 특허등록 선점 및 개발 방향 진로를 확보하여 법률적 장벽을 넘을 수 있게 됨.
- ※ 전 세계 실물경제에 실질적 화폐로 통용될 수 있음.
- ※ 전 세계가 인정하고 협력하는 유엔정책을 개발하고 이미 의결된 아젠다 2030을 위해 지원을 하게 됨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실물경제 인프라를 담당하게 됨.

04 모비코인 : HMBC 코인 관련 특허적용

대한민국 최초로 다수의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을 위해 국제 특허도 일부 완료되었음.

4.1 금융 분야

- 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채권 양도 기능을 구현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 ② 투자 및 대출조건이 일치하는 이용자 간의 금융 서비스를 중개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 ③ P2P 투자 매칭 시스템
- ④ 이용자의 대출조건을 기반으로 적합한 투자자를 매칭하는 금융 시스템
- ⑤ 적합한 조건의 투자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 중개 시스템
- ⑥ 투자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중개 시스템
- ⑦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채권 증명을 수행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 ⑧ P2P 투자 중개 매칭 시스템
- ⑨ 가상화폐를 이용한 온라인 대출 시스템
- ⑩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를 선별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 ⑪ 대출 및 투자 조건 매칭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이용자 간의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 ⑫ 온라인 신용 심사 및 대출조건 판단에 기반하여 투자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중개 시스템
- ⑬ 채무자와 투자자간 그룹 매칭을 수행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4.2 메신저 분야

- ① 통합 인증 기반의 다중 메신저 실행 장치 및 방법
- ② 다수개의 메신저를 통합하여 실행하는 방법 및 장치
- ③ 다수 메신저에서 수행된 대화목록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 ④ 다수개의 메신저에서 수신된 메시지 및 파일을 통합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
- ⑤ 메신저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방법 및 장치
- ⑥ 통합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적합 메신저를 자동 선택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
- ⑦ 통합 메신저 실행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신저의 추가 등록 지원 방법 및 장치

4.3 물류 분야

- ① 물품과 암호화폐 거래 지원 시스템
- ② 물품 평가 및 암호화폐 거래 지원 시스템

- ③ 전자화폐를 채권증서로 이용하는 투자 중개 시스템

4.4 응용 가능한 업무

- ① 공중 드론 및 무인자동차간의 실시간 네트워킹
- ② 다중배송을 위한 동시접속 시스템 업무
- ③ 경로 및 처리내용 별 빅데이터 구현 업무
- ④ 금융지원 필요여부 식별 업무 (긴급재정지원)
- ⑤ 자산의 리스크 분산을 위한 응용 업무 (보험 등)

05 모비코인 : HMBC(하이레벨모비코인) 로드맵

5.1 초기부터 현재 (2015 ~ 2019.2Q)

2015 | 기획 및 런칭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기획 및 개발, 러시아 및 인도개발자, 한국개발자 런칭 [기여]

2016 | 모비달러 공공정책

- 세계 공통통화 프로젝트 모비달러 정책기획에 참여
(기존의 기본정책에 방출방법 등 공공정책 부분) [기여]

2017 | 해외 개발자 런칭 및 유엔(UN)발표

- 상반기** - 미국, 러시아개발자 런칭 & 블록체인 금융주제 유엔발표 (2회에 걸쳐 전세계 최초로 유엔 내에서 암호화폐 주제로 공식발표) [완료]
- 하반기** -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초대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빈곤퇴치와 번영"의 주제로 석, 박사 4명 유엔으로부터 파견승인 받음) [완료]

2018 | 모비달러 권한 위임 및 특허 등록

- 상반기** - 유엔본부 병행회의 임원으로 참여 (회의 중 모비달러 프로젝트에 관한 권한을 ISEA재단에 위임) [완료]
- 하반기** - 특허 기획 및 등록완료 (20여개 이상의 특허 보유, 국제특허 출원) [완료]

2019년 진행계획

1Q 2019 | 유엔본부 행사 대표파견

- 뉴욕 유엔비정부기구 정기회의 파견대표 선정 [진행]

2Q 2019 | 제네바 유엔회의 주관

- 생존인권 및 모비달러에 관한 유엔총회 공식문서 등재 [예정]

3Q 2019 | 거래소 상장 테스트 및 월렛형 플랫폼 셋업

- 글로벌 거래소 상장 테스트 및 월렛형 플랫폼에 P2P거래 모듈 탑재 [예정]

4Q 2019 | 개발팀 추가 구성

- 월렛 및 코인 고도화, 업데이트를 위한 개발팀 추가 [진행]

5.2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

금융기관연계 암호화폐 ATM기계 제작

코인대출 전용 금융기관 연동 (특허보유)

스마트시티 권고안 발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개발

06 개발 컨소시엄

Chief Policy Directo

KIM Sion

- MobiDollar, MobiCoins 프로젝트 총괄
- 모비달러 정책실장 및 유엔회의 발표
- 베이징 칭화대 공공정책 경영국제개발 석사
- 뉴욕 주립대학교 경영학 학사

Chief Director of Technology and Development

KANG Harry

- (주)더퍼 블록체인 코인월렛 통합솔루션 개발실장
- P2P코인중개 플랫폼 및 IOS, Android, Private앱 개발
- 고려대학교 컴퓨터 공학 석사
- 컴퓨터 응용 기술 및 개발 분야에서 20 년 경력

consortium : Advisor and Technology team

- Arab-Middle East Advisor
- North America Advisor
- Europe Advisor
- Asia Pacific Advisor

모비코인 : HMBC 블록체인 및 플랫폼 기술개발

본 플랫폼 및 토큰 개발과 정책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다수의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 기관 임원들과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보안을 위해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참여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는 유출하지 않고 있음에 양해하여 주십시오.

07 부록

전문 용어 설명

탈중앙화: 중앙집중화를 벗어나 분산된 소규모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플랫폼: 정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 서비스.

스마트 시티: 발전된 기술들을 이용하여 도시의 주요 기능을 강화 및 네트워크화한 첨단 도시.

IoT: 사물에 센서와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 관리하는 시스템.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와 방법, 공식.

프로슈머: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

금본위제: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화폐 제도.

기축통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모비코인즈 부분

[KIM Sion Policy Director 유엔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Xhfhjndv6oQ>

<https://www.youtube.com/watch?v=kqf4X5DBRbA>

[유튜브 모비달러 영상들 (영어, 일어, 한글, 스페인어, 등)]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mobidollar+mobicoin+isea

본 백서는 재단의 정책에 따라 예고없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제안과 기획문서이므로 계약 등 법적효력 문서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본 백서의 기본모델은 <https://www.mobicoin.agency/> 에서 제공하며

공식팀의 사전 동의 없이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감사합니다.